

예루살렘 멸망 연대기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의 비교 연구

예루살렘 멸망 연대기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의 비교 연구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의 성경적·문헌적·천문역법적 검토

정식 논문 정리본

성경 본문 · 신바벨론 문헌 · 천문역법 · 안식년/희년 주기 비교

제네시스 연구소 월간 세미나

작성 및 정리: 양승원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초록

예루살렘 멸망 연대는 구약 역사 연구와 성경 연대기, 예언 해석, 안식년·회년 주기 연구에서 핵심적인 기준점이다. 일반적으로 제1성전 파괴는 B.C. 586년 또는 B.C. 587년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유진 폴스티히(Eugene W. Faulstich)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프톨레미 정경의 왕년 배정 오류 가능성과 성경 내부 연대 계산, 제사장 반차, 안식년·회년 주기 등을 근거로 B.C. 588년설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견해를 비교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특히 B.C. 588년설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B.C. 586년설은 전통적 톨레식 체계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에스겔 40:1과의 조화에서 약점이 있고, B.C. 587년설은 현재 다수의 문헌·성경 내부 계산과 가장 안정적으로 조화되는 견해로 평가된다. B.C. 588년설은 성경 본문과 주기론적 자료를 새롭게 결합하려는 창의적 대안 가설이나, BM 21946과 VAT 4956 등 신바벨론 1차 자료와의 정밀한 재해석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주제어: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 느부갓네살, BM 21946, VAT 4956, 에스겔 40:1, 안식년, 회년

목차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성경 본문이 제공하는 기본 연대 자료
- IV. 세 가지 이론의 기본 구조와 비교
- V. B.C. 588년설의 장점과 한계
- VI. 앞으로 검증해야 할 핵심 과제
- VII. 결론
- 주석
- 참고문헌

I. 서론

예루살렘 멸망 연대는 단순한 역사 연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연대는 유다 왕국의 종말, 바벨론 포로의 시작과 전개,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의 시간 구조, 다니엘서의 포로 연대,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의 사건 배열이 달라지고, 느부갓네살의 즉위년과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작과 종점, 나아가 성전 파괴와 회복 예언의 시간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¹

그러나 고대 연대기 연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성경 본문, 바벨론 연대기, 프톨레미의 천문 자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탈무드와 세데르 올람 전승, 제사장 반차와 안식년·희년 주기, 현대 천문 계산 자료까지 수많은 정보가 연구자의 눈앞에 놓여 있다. 문제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주장과 해석, 상반된 계산과 전승이 함께 제시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근본 자료이며, 무엇이 후대 전승이고, 무엇이 계산상의 가정인지 분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²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는 단순히 어느 학자의 결론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 각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어떤 달력과 왕년 계산법을 전제로 하는지, 성경 본문과 얼마나 조화되는지, 그리고 다른 독립 자료와 교차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프톨레미 정경은 중요한 천문학적 자료이지만 그 왕년 배정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바벨론 연대기는 강력한 1차 문헌이지만 바벨론식 달력과 즉위년 계산을 전제로 한다. 요세푸스와 랍비 전승 역시 귀중한 자료이나, 성경 본문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에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오늘날의 연구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도 제공한다. 과거에는 수십 권의 문헌을 대조하고 복잡한 역법을 손으로 계산해야 했지만, 이제는 AI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성경 본문, 고대 문헌, 천문 자료, 역법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AI가 최종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AI는 방대한 참고문헌을 분류하고, 성경 구절을 교차 비교하며, 서로 다른 연대 계산의 전제를 표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논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대의 컴퓨터 계산은 고대 연대기 연구에 실질적인 검증 도구를 제공한다. 율리우스일 번호, 바벨론 음력, 히브리력, 이집트력, 율리우스력 변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월식과 월령, 하지점, 행성 위치, 아브월 7일·9일·10일의 요일, 제사장 24반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올림피아드 주기 등을 하나의 계산 체계 안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적 접근은 특정 연대설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연대설이 실제 역법과 천문 자료, 성경의 월일 표기와 조화되는지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게 한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복음주의권에서는 에드윈 틸레(Edwin R. Thiele)의 연구를 따라 예루살렘 멸망을 B.C. 586년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었다. 반면 윌리엄 F. 올브라이트(W. F. Albright), D. J. 와이즈먼(D. J. Wiseman), 로저 영(Rodger C. Young) 등은 성경 본문과 바벨론 자료를 검토하며 B.C. 587년설을 제시하거나 지지하였다. 한편 유진 폴스티히(Eugene W. Faulstich)는 프톨레미 정경의 오류 가능성과 컴퓨터 역법 계산을 근거로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6년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B.C. 588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본 논문의 목적은 세 이론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론이 의존하는 기준점과 계산 구조를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평가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성경 본문을 중심축으로 삼아 바벨론 문헌, 천문학 자료, 요세푸스와 랍비 전승, 제사장 주기와 안식년·희년 주기, 그리고 컴퓨터 역법 계산을 교차 검증한다. 이를 통해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이 각각 어떤 자료와 논리에 근거하는지 밝히고, 후반부에서는 B.C. 588년설이 가진 연구 가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검증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 견해를 미리 확정하고 자료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다. 연대기 연구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동일한 자료도 달력 체계와 왕년 계산법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성경 말씀과 고대 문헌, 천문 자료와 주기론적 계산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는 단순한 날짜 논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역사성과 신학적 시간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예루살렘 멸망 연대에 관한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 고대 문헌, 천문학 자료, 역법 자료, 주기론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단일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독립 자료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되거나 긴장을 일으키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첫째, 성경 본문을 중심 자료로 삼는다. 주요 본문은 열왕기하 24-25장, 예레미야 25장, 32장, 34장, 39장, 52장, 에스겔 1장, 24장, 33장, 40장, 다니엘 1장이다. 이 본문들은 여호야김 제4년,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긴 포로, 시드기야 통치,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 성전 파괴, 포로 25년, 성읍 함락 후 14년 등의 중요한 연대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 본문들의 왕년 계산, 사건 순서, 월일 표기, 신학적 배경을 함께 분석한다.

둘째, 바벨론 문헌을 검토한다. 특히 BM 21946, 곧 예루살렘 연대기 또는 느부갓네살 연대기는 여호야긴 포로와 느부갓네살 초기 연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다. 이 문헌은 나보폴라사르 말년, 갈그미스 전투, 느부갓네살 즉위, 느부갓네살 제7년의 예루살렘 원정을 다루기 때문에, B.C. 605년설과 B.C. 606년설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본 연구는 이 문헌의 바벨론식 왕년 표기와 성경의 히브리식 왕년 표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한다.⁴

셋째, 천문학 자료를 사용한다. 프톨레미 『알마게스트』에 보존된 나보폴라사르 5년 월식과 VAT 4956의 느부갓네살 37년 천문일지는 신바벨론 연대의 절대 기준점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 천문 자료들이 실제 월식·달의 위치·행성 위치·하지점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느부갓네살 즉위년 B.C. 605년설 또는 B.C. 606년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프톨레미 정경의 왕년 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천문 현상 자체와 왕년 연결 방식 사이에 구분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⁵

넷째, 즉위년 계산법을 비교한다. 고대 근동 왕년 계산에는 즉위년식과 비즉위년식이 있으며, 바벨론식 계산과 히브리식 계산은 서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바벨론식 즉위년 계산에서는 왕이 즉위한 해를 ‘즉위년’으로 보고, 다음 니산월부터 제1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유다 왕국은 티슈리월을 기준으로 왕년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며, 때로는 비즉위년식 계산이나 공동통치 개념이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검토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느부갓네살 제18년과 제19년, 시드기야 제10년과 제11년, 여호야긴 포로 후 25년과 성읍 함락 후 14년이 각각 어떤 계산법 아래에서 산출되는지를 비교한다.

다섯째, 역법 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바벨론 음력, 히브리력, 이집트력, 율리우스력, 천문학적 연도 표기법을 서로 변환하여 각 사건의 실제 날짜를 계산한다. 특히 아브월 7일, 9일, 10일의 요일과 월령, 예루살렘 포위 시작일인 열째 달 10일, 성벽 함락일인 넷째 달 9일, 성전 소실일인 다섯째 달 7일 또는 10일을 역법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B.C. 586년, B.C. 587년, B.C. 588년 시나리오가 각각 성경의 월일 표기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검증한다.

여섯째, 주기론적 자료를 비교한다. 제사장 24반차, 안식일 주기, 안식년 주기, 희년 주기, 아브월 9일 전승, 예레미야 34장의 히브리 노예 해방 언약, 에스겔 40:1의 희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제사장 반차의 경우 여호야립 반차 전승과 성전 파괴일의 관계를 살피고, 안식년과 희년의 경우 멸망 직전 유다 사회가 왜 노예 해방 언약을 맺었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주기론적 자료는 윤월 삽입, 주기 중단 여부, 포로기 이후 재개 방식, 49년 회년설과 50년 회년설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보조적 검증 자료로 사용한다.⁶

일곱째, 고대 세계의 장기 연대 기준으로 올림피아드 주기도 참고한다. 올림피아드는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의 역사 연대 표기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바벨론·페르시아·헬라 시대의 절대연대를 비교하는 보조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올림피아드 주기를 직접적인 성경 연대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프톨레미 정경, 페르시아 왕년, 헬레니즘 시대 연대표와의 연결성을 검토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

여덟째, 컴퓨터를 이용한 역법·천문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현대 천문 계산 프로그램과 역법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월식, 월령, 조승달 관측 가능성, 하지점, 행성 위치, 바벨론 음력 월초, 히브리력 날짜, 율리우스력 날짜를 계산한다. 또한 제사장 반차, 안식일, 안식년, 회년, 올림피아드 주기를 수학적 주기 계산으로 배열하여 세 연대설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Python 기반 계산, 천문 알고리즘, JDN 곧 율리우스일 번호, NASA식 월식 자료, 바벨론 음력 복원표, 히브리력 변환 알고리즘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홉째, 비교표와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을 각각 독립적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느부갓네살 즉위년, 제1년, 제7년, 제18년, 제19년, 여호야긴 포로, 시드기야 즉위, 예루살렘 포위, 성벽 함락, 성전 파괴, 에스겔 40:1의 환상 연대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표로 비교한다. 이를 통해 각 이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성경 본문·문헌 자료·천문 자료·주기 자료와의 조화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검증 가능성을 중시한다. B.C. 586년설은 전통적 연대 체계로서, B.C. 587년설은 현재 문헌과 성경 내부 계산의 안정적 후보로서, B.C. 588년설은 성경 본문과 주기론적 자료를 새롭게 연결하는 대안 가설로서 비교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연대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각 연대설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며 어떤 부분에서 더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III. 성경 본문이 제공하는 기본 연대 자료

예루살렘 멸망 연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경 본문 자체이다. 본 연구는 성경 본문을 단순한 신학적 증언으로만 보지 않고, 고대 근동 문헌과 천문학 자료, 랍비 전승과 요세푸스 기록을 검증하는 기본 연대기 자료로 사용한다. 성경은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증언할 뿐 아니라, 왕년, 월일, 포로 연대, 성전 기공과 파괴, 안식년과 회년의 주기적 배경을 함께

제공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 연대는 성경 외부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과 외부 문헌이 서로 교차 검증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1.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의 성전 파괴 날짜

열왕기하 25:8은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일곱째 날에 바벨론 왕의 신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한다. 예레미야 52:12는 같은 사건을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열째 날로 기록한다. 두 본문은 모두 느부갓네살 제19년이라는 동일한 왕년을 제시하지만, 다섯째 달의 날짜에서는 7일과 10일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사건의 진행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곧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파괴 명령을 집행하기 시작한 날과 성전 소각이 실제로 진행되거나 완결된 날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열왕기와 예레미야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의 시작일과 결정적 소각일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7일과 10일의 차이는 본문 간 모순이라기보다, 예루살렘 멸망이 며칠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될 수 있다.

2. 예레미야 52:29의 느부갓네살 제18년

예레미야 52:29는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832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한다. 이는 열왕기하 25:8과 예레미야 52:12의 “느부갓네살 제19년” 표현과 긴장 관계를 이룬다. 이 긴장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바벨론식 즉위년 계산과 유다식 왕년 계산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바벨론식 계산에서는 왕이 즉위한 해를 즉위년으로 보고, 다음 니산월부터 제1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유다 왕국은 티슈리월을 기준으로 왕년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 비즉위년식 계산이 사용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한 계산법에서는 느부갓네살 제18년으로, 다른 계산법에서는 제19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예레미야 52:29는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에서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은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 모두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핵심 자료이다.

3. 예레미야 32장과 34장의 멸망 직전 상황

예레미야 32:1은 시드기야 제10년이 느부갓네살 제18년이라고 말한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나돗의 밭을 산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매매가 아니라, 멸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예언적 행동이었다.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와 백성이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기로 언약했다가 다시 잡아 종으로

삼은 사건을 기록한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유다 사회 안에 안식년 또는 희년과 관련된 의식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의 종해방과 희년 규례를 고려할 때, 예레미야 34장은 단순한 사회 윤리 문제가 아니라 연약적 시간표, 곧 안식년·희년 주기와 연결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예레미야 32장과 34장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본문이다. 예루살렘 멸망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땅의 안식과 종의 자유, 토지 무름과 희년의 정신을 거부한 연약 공동체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에스겔 40:1의 이중 연대 표지

에스겔 40:1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읍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그 해의 시작, 그 달 열째 날”이라는 매우 독특한 이중 연대 표지를 제시한다. 이 본문은 여호야긴 포로와 예루살렘 함락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 결정적 본문이다.

여기서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는 여호야긴 포로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 “성읍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는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두 기준점이 하나의 날짜에서 만난다면, 여호야긴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 사이의 연대 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그 해의 시작, 그 달 열째 날”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주목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력의 첫 달은 니산월이지만, “그 해의 시작”과 “그 달 열째 날”이 함께 언급될 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티슈리월 10일, 곧 대속죄일과 연결하여 희년 선포일로 이해한다. 레위기 25:9은 희년이 일곱째 달 열째 날, 곧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선포된다고 말한다. 만일 에스겔 40:1이 희년적 배경을 가진다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뿐 아니라 안식년·희년 주기 연구의 핵심 기준점이 된다.

5. 다니엘 1:1과 열왕기하 24:1의 문제

다니엘 1:1은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기록한다. 전통적 해석은 이 “여호야김 제3년”을 바벨론식 계산 또는 즉위년식 계산으로 설명하여, 예레미야 25:1과 46:2의 “여호야김 제4년”과 조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열왕기하 24:1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열왕기하 24:1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삼 년 동안 섬기다가 돌이켜 배반했다고 기록한다. 만일 다니엘 1:1의 사건을 여호야김 제3년의 단순한 예루살렘 침공으로만 이해하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섬긴 “삼 년”과 그 이후의 배반, 그리고 예레미야 25:1의 “여호야김 제4년 = 느부갓네살 원년”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다니엘 1:1은 단순히 즉위년 계산 차이로만 해결하기보다, 열왕기하 24:1, 예레미야 25:1, 예레미야 46:2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적 표현에서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이 예루살렘 전체 정복의 연대인지, 바벨론 종주권 아래에서의 종속 기간을 가리키는지, 또는 느부갓네살과 여호야김의 관계가 본격화된 시점을 말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5년으로 볼 것인지, B.C. 606년으로 볼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에서 부차적 본문이 아니라, 여호야김 말기와 바벨론 종주권의 시작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 본문이다.

6. 에스겔 4장의 390년과 40년, 총 430년

에스겔 4장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390일과 유다 족속의 죄악 40일을 담당하는 상징 행위를 기록한다. 본문은 “하루가 일 년”이라는 원리를 명시하므로, 이 두 숫자는 각각 390년과 40년, 합하여 430년이라는 상징적·연대기적 의미를 가진다.

이 430년은 출애굽기 12:40의 애굽 체류 430년과도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이 축적되어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기간을 상징하는 수로 이해될 수 있다. 일부 연대기 연구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기간, 또는 솔로몬 성전 기공 이후 성전 파괴까지의 기간과 이 숫자를 비교한다.

따라서 에스겔 4장의 430년은 단순한 상징 숫자로만 처리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장기 연대 구조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숫자가 실제 역사 연대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 각각의 계산에서 중요한 비교 항목이 될 수 있다.

7. 열왕기상 6:1의 출애굽 후 480년과 성전 기공

열왕기상 6:1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통치 제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한다. 이 본문은 성경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연대 기준점 중 하나이다.

이 기록은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솔로몬 성전 기공을 하나의 큰 시간 구조로 연결한다. 따라서 성전의 기공과 파괴 연대는 출애굽 연대와도 연결된다. 만일 솔로몬 통치 제4년과 성전 기공 연대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출애굽 연대와 예루살렘 멸망 연대의 장기 구조가 달라진다.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를 출애굽 후

592년이라고 기록한다. 이는 열왕기상 6:1의 480년과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요세푸스가 사사 시대의 계산, 중복 기간, 또는 다른 전승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기록은 중요한 외부 증언이지만, 성경 본문과 일치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8. 가나안 입성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회년 전승

탈무드와 세데르 올람 계열 전승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제1성전 파괴와 포로에 이르기까지 17번의 회년 주기가 지났다는 전승이 나타난다. 이 전승은 에스겔 40:1의 “그 해의 시작, 그 달 열째 날”을 회년 선포일로 이해하는 해석과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년 주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회년을 문자적으로 50년 주기로 계산하는 견해에서는 17번의 회년 주기가 850년이 된다. 곧 $17 \times 50 = 850$ 년이다. 반면 회년을 49년 주기, 곧 일곱 안식년 주기의 완성으로 계산하는 견해에서는 17번의 회년 주기가 833년이 된다. 곧 $17 \times 49 = 833$ 년이다.

따라서 “가나안 입성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17번의 회년이 지났다”는 전승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하나의 절대연대를 확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0년 주기설을 따르면 850년이라는 장기 연대가 산출되고, 49년 주기설을 따르면 833년이라는 다른 연대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승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단정하는 독립 증거라기보다, 안식년·회년 주기를 검토하는 중요한 보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전승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 역사는 단순한 정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과 회년의 시간 구조 안에서 해석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회년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땅에서 쫓겨나고, 땅은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관점은 역대하 36:21의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는 말씀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회년 전승을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한다. 첫째, 50년 주기설에 따른 850년 계산이다. 둘째, 49년 주기설에 따른 833년 계산이다. 두 계산을 각각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과 대조함으로써, 어느 연대설이 성경 본문과 랍비 전승, 안식년·회년 주기와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한다.

9. 요세푸스 기록과 성경 본문의 교차 검증

요세푸스는 제1성전과 제2성전의 역사, 성전 기공,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중요한 외부 증언을 제공한다. 그는 솔로몬 성전 기공을 출애굽 후 592년으로 기록하고, 제1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제18년, 시드기야 제11년, 다섯째 달의 사건으로 설명한다. 또한 『유대전쟁사』에서는 제2성전이 아브월 10일에 불탔고, 이 날이

옛날 바벨론 왕에 의해 제1성전이 불탔던 날과 같다고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성경 본문과 흥미롭게 교차한다. 열왕기하 25장은 다섯째 달 7일을, 예레미야 52장은 다섯째 달 10일을 말한다. 요세푸스의 전승은 예레미야 52장의 10일 전승과 더 가까운 면이 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 안에도 작품 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요세푸스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기보다는 성경 본문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요세푸스는 성경 외부의 중요한 역사 증인이지만, 그의 연대 자료는 때로 성경 본문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요세푸스를 성경 연대기를 보완하는 외부 증언으로 사용하되, 최종 판단 기준은 성경 본문과 1차 고대 문헌, 천문 자료의 교차 검증에 둔다.

10. 성경 연대기의 검증 기능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에서 성경 본문은 단순히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기준이다. 고대 문헌은 귀중하지만, 각 문헌은 작성 목적과 달력 체계, 왕년 계산 방식, 전승 과정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프톨레미 정경은 천문 계산을 위한 왕년 표이고, 요세푸스는 로마 시대 유대 역사가의 서술이며, 탈무드와 세데르 올람은 랍비적 신학과 전승을 반영한다. 바벨론 연대기는 1차 자료로서 강력하지만, 그것 역시 바벨론식 왕년 계산과 달력 체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연대기 자료는 외부 문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문헌의 왕년과 사건, 월일과 주기를 검증하는 중심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열왕기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열왕기상, 역대하의 연대 표지를 함께 배열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단순한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성전 기공, 왕정, 포로, 안식년, 회년, 회복 예언이 만나는 거대한 성경적 시간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 본문을 중심에 두고, 바벨론 문헌, 프톨레미의 천문 자료, 요세푸스, 탈무드와 세데르 올람 전승, 제사장 주기와 안식년·회년 계산을 교차 검증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의 장단점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IV. 세 가지 이론의 기본 구조와 비교

예루살렘 멸망 연대에 대해서는 크게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의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세 견해는 모두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0:1, 바벨론 연대기, 느부갓네살 왕년 계산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각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과 왕년 계산의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세 이론의 차이는 단순히 “1년 또는 2년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본문과 외부 문헌, 천문 자료와 주기론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B.C. 586년설

B.C. 586년설은 주로 에드윈 틸레(Edwin R. Thiele)의 히브리 왕 연대기 체계와 연결된다. 틸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년 계산 방식이 서로 달랐으며, 때로는 즉위년식과 비즉위년식이 혼용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유다 왕국이 티슈리월을 기준으로 통치연도를 계산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복잡한 히브리 왕들의 통치연수를 하나의 체계 안에 정리하려 했다.

이 견해에서 중요한 기준점은 여호야긴 포로 연대이다. 바벨론 연대기 BM 21946에 근거하여 여호야긴의 포로를 B.C. 597년으로 잡고, 시드기야의 11년 통치를 거쳐 예루살렘의 최종 함락과 성전 파괴를 B.C. 586년으로 계산한다. 열왕기하 25:8과 예레미야 52:12가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느부갓네살 제19년”으로 기록한다는 점도 이 견해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B.C. 586년설의 장점은 전통적으로 널리 수용되어 온 체계라는 점이다. 틸레의 연구는 히브리 왕들의 복잡한 통치연수를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동시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즉위년식, 비즉위년식, 공동섭정, 티슈리력과 니산력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열왕기하와 예레미야가 말하는 느부갓네살 제19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경 본문의 한 축을 충실히 반영한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하다. 에스겔 40:1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읍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라는 이중 연대 표지를 제공한다. 이 본문을 엄밀히 계산하면 B.C. 586년보다 B.C. 587년이 더 자연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틸레의 체계는 여러 곳에서 공동섭정과 중첩 통치를 가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중첩 통치를 설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B.C. 586년설은 전통적 안정성은 있으나, 에스겔의 포로 연대와 성읍 함락 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B.C. 587년설

B.C. 587년설은 현재 많은 학자들이 선호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바벨론 연대기 BM 21946이 제공하는 여호야긴 포로 B.C. 597년 기준점과 에스겔 40:1의 계산을 결합하여,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를 B.C. 587년 여름으로 본다. 윌리엄 F. 올브라이트(W. F. Albright), D. J. 와이즈먼(D. J. Wiseman), 로저 C. 영(Rodger C. Young) 등은 서로 세부 계산에는 차이가 있으나, B.C. 587년설을 지지하거나 이 연대를 가장 타당한 후보로 보았다.

B.C. 587년설의 핵심은 성경 본문 내부의 연대 표지들을 가능한 한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 여호야긴 포로를 B.C. 597년으로 놓고, 에스겔 40:1의 “포로 25년”과 “성읍 함락 후

14년”을 계산하면 B.C. 587년이 강하게 도출된다. 또한 예레미야 52:29가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잡혀간 때를 “느부갓네살 제18년”으로 기록한다는 점도 B.C. 587년설과 잘 조화될 수 있다.

이 견해의 장점은 성경 본문과 바벨론 자료의 균형이다. BM 21946은 여호야킨 포로를 B.C. 597년으로 고정하는 강력한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에스겔 40:1은 그 기준점에서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계산하게 해준다. 또한 예레미야 52:29의 느부갓네살 제18년 표현은 바벨론식 즉위년 계산과 잘 맞을 수 있다. 따라서 B.C. 587년설은 B.C. 586년설보다 에스겔 40:1과 예레미야 52:29의 긴장을 더 적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B.C. 587년설에도 설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열왕기하 25:8과 예레미야 52:12는 예루살렘 파괴를 느부갓네살 제19년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B.C. 587년설은 왜 어떤 본문은 제18년을 말하고, 다른 본문은 제19년을 말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바벨론식 즉위년 계산과 유다식 통치년 계산의 차이, 또는 니산월 기준과 티슈리월 기준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 설명은 가능성이 높지만, 독자는 두 계산법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결국 B.C. 587년설은 현재 문헌 자료와 성경 내부 계산의 균형에서 가장 안정적인 견해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의 제19년 표현을 계산법의 차이로 설명해야 하므로, 완전히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B.C. 588년설

B.C. 588년설은 유진 폴스티히(Eugene W. Faulstich)의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견해는 프톨레미 정경의 왕년 배정에 오류가 있으며, 느부갓네살의 즉위년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B.C. 605년이 아니라 B.C. 60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제18년 또는 제19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멸망은 B.C. 588년으로 올라가게 된다.

흥미롭게도 17세기 영국의 대주교 제임스 어셔(James Ussher)도 예루살렘 멸망을 B.C. 588년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결과 연도만 놓고 보면 어셔와 폴스티히는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두 사람의 논증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폴스티히는 프톨레미 정경의 오류 가능성과 컴퓨터 역법 계산을 통해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6년으로 조정하려 한 반면, 어셔는 느부갓네살이 부왕 또는 섭정으로 군사적 왕권을 행사한 시기와, 나보폴라사르 사후 단독 왕으로 즉위한 시기를 구분하였다.

어셔의 체계에서 다니엘 1:1의 “여호야김 제3년”은 느부갓네살이 아직 단독 왕으로 즉위하기 전, 부왕 또는 섭정적 지위에서 군사 행동을 수행한 시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1과 46:2의 “여호야김 제4년 = 느부갓네살 원년”은 그 다음 단계의 왕권 또는 바벨론 종주권

의 확립과 관련된 시기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어서는 예루살렘 멸망 연도에서는 B.C. 588년설과 일치하지만, 다니엘 1:1과 예레미야 25:1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는 오히려 틸레나 주류 학자들이 사용하는 “느부갓네살의 군사 활동 시기와 공식 즉위 시기의 구분”과 비슷한 면을 가진다.

그러므로 어서를 B.C. 588년설의 선행 사례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를 곧바로 폴스티히식 B.C. 606/588년 체계의 지지자로 분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어서의 B.C. 588년설은 성경 연대, 프톨레미 정경, 고전 연대기, 나보나사르 기원, 올림피아드 체계를 종합한 17세기식 연대기 체계 안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폴스티히의 B.C. 588년설은 프톨레미 정경의 오류 교정, 컴퓨터 역법 계산, 성경 내부 연대 표지의 재검토를 통해 제시된 현대적 대안 가설이다. 따라서 두 견해는 “예루살렘 멸망 B.C. 588년”이라는 결론에서는 일치하지만, 기준점과 논증 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B.C. 588년설은 예레미야 25:1과 46:2의 “여호야김 제4년 =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만일 여호야김 제4년을 B.C. 606년으로 계산한다면, 갈그미스 전투와 느부갓네살 원년도 B.C. 606년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다니엘 1:1의 여호야김 제3년 문제, 열왕기하 24:1의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3년 섬기다가 배반한 사건, 예레미야 34장의 히브리 노예 해방 언약, 안식년·회년 주기, 제사장 반차 주기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다니엘 1:1에 대한 해석은 B.C. 588년설에서 중요한 논점이 된다. 틸레는 다니엘 1:1의 “여호야김 제3년”을 예레미야 25:1의 “여호야김 제4년”과 같은 시기로 보되, 바벨론식 즉위년 계산과 유다식 계산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해석은 다니엘 1장의 문맥, 곧 예루살렘 포위, 성전 기구 반출, 왕족과 귀족 청년들의 바벨론 이송, 바벨론 종속의 시작이라는 사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열왕기하 24:1의 “여호야김이 삼 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보면, 다니엘 1:1의 “제3년”은 단순한 왕년 계산 차이가 아니라 바벨론 종주권 아래 놓인 여호야김의 종속 기간과 관련된 표현일 가능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견해의 장점은 성경 본문을 외부 연대에 종속시키지 않고, 성경 내부의 연대 표지와 주기적 신학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특히 예레미야 25:1과 46:2의 동기화, 다니엘 1:1과 열왕기하 24:1의 재검토,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언약, 역대하 36:21의 땅의 안식, 에스겔 40:1의 회년 가능성은 B.C. 588년설을 단순한 역사 연대 가설이 아니라 성경 신학적 시간 구조와 연결된 연구로 만든다. 또한 이 견해는 프톨레미 정경을 절대무오한 연대 기준으로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B.C. 588년설은 제사장 24반차, 안식일, 안식년, 회년 주기와 결합될 때 더 큰 연구 가능성을

가진다. 만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 안식년 또는 회년과 연결될 수 있다면,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사건은 단순한 사회개혁 실패가 아니라 언약적 시간표를 거역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나안 입성부터 성전 파괴까지의 회년 전승, 에스겔 40:1의 “그 해의 시작, 그 달 열째 날”이라는 표현, 아브뵐 성전 파괴일과 제사장 반차 전승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B.C. 588년설의 약점은 상당히 크다. 신바벨론 연대는 프톨레미 정경 하나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BM 21946, VAT 4956, 바벨론 경제문서, 천문일지 등 여러 자료가 상호 보강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B.C. 588년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프톨레미 정경의 오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BM 21946의 나보폴라사르 제21년, 느부갓네살 즉위년, 느부갓네살 제7년 예루살렘 원정 기록을 B.C. 606/598 체계 안에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 또한 VAT 4956의 느부갓네살 제37년 천문일지를 B.C. 568/567년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B.C. 588년설은 기존 주류 연대에 도전하는 독창적인 대안 가설이지만, 아직 결정적 결론이라기보다는 더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는 연구 가설로 보아야 한다. 어서의 연대기는 B.C. 588년설이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이지만, 어서의 논증 방식은 폴스티히의 현대적 B.C. 588년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견해는 성경 본문과 주기론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연구 가치가 있다.

4. 세 이론의 비교표

항목	B.C. 586년설	B.C. 587년설	B.C. 588년설
대표 학자	Edwin R. Thiele	W. F. Albright, D. J. Wiseman, Rodger C. Young 등	Eugene W. Faulstich
느부갓네살 즉위년	B.C. 605	B.C. 605	B.C. 606
느부갓네살 제1년	B.C. 604/603	B.C. 604/603	B.C. 605/604 또는 B.C. 606/605 체계
여호야긴 포로	B.C. 597	B.C. 597	B.C. 598 또는 B.C. 599/598
시드기야 즉위	B.C. 597	B.C. 597	B.C. 598 또는 B.C. 599/598
예루살렘 멸망	B.C. 586	B.C. 587	B.C. 588
중시 본문	왕하 25:8, 렘 52:12	겔 40:1, 렘 52:29, 왕하 25장	렘 25:1, 렘 46:2, 단 1:1, 렘 34장
주요 외부 근거	프톨레미 정경, BM 21946, 티레식 왕년 체계	BM 21946, 에스겔 포로 연대, 바벨론 자료	프톨레미 정경 오류 주장, 컴퓨터 역법 계산, 주기론
왕년 계산 특징	유다 티슈리력, 공동섭정,	바벨론식/유다식 계산 차이로 제18년·제19년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1년

	제19년 강조	조화	앞당김
강점	전통적 체계성, 열왕기하·예레미야의 제19년 반영	성경 본문과 바벨론 자료의 균형, 에스겔 40:1과 조화	성경 중심성, 예레미야·다니엘 본문 재검토, 안식년·희년 주기와 연결
약점	에스겔 40:1과 긴장, 중첩 통치 가정 문제	제19년 표현을 계산법 차이로 설명해야 함	BM 21946, VAT 4956, 바벨론 경제문서 재해석 부담
연구 평가	전통적 견해이나 재검토 필요	현재 가장 안정적인 학문적 후보	창의적 대안 가설, 추가 검증 필요

5. 종합 평가

세 이론 가운데 B.C. 586년설은 전통적 안정성을 가진다. 특히 킬레의 체계는 오랫동안 보수적 성경 연대기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히브리 왕들의 복잡한 통치연수를 일관된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에스겔 40:1의 이중 연대 표지와 예레미야 52:29의 느부갓네살 제18년 표현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B.C. 587년설은 현재 가장 균형 잡힌 견해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견해는 BM 21946이 제공하는 여호야긴 포로 B.C. 597년 기준점과 에스겔 40:1의 포로 25년, 성읍 함락 후 14년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조화시킨다. 또한 예레미야 52:29의 느부갓네살 제18년 표현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열왕기하 25:8과 예레미야 52:12의 제19년 표현은 바벨론식과 유다식 계산 차이로 설명해야 한다.

B.C. 588년설은 기존 주류 연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이 견해는 프톨레미 정경의 왕년 배정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6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예루살렘 멸망을 B.C. 588년으로 본다. 또한 예레미야 25:1, 46:2, 다니엘 1:1, 예레미야 34장, 안식년·희년·제사장 반차 주기를 통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연구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 견해가 주류 연대를 대체하려면 BM 21946과 VAT 4956을 포함한 신바벨론 1차 자료를 설득력 있게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신중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B.C. 586년설은 전통적 견해로서 존중할 가치가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고, B.C. 587년설은 현재 문헌 자료와 성경 계산의 균형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B.C. 588년설은 성경 본문과 주기론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체계에 도전하는 중요한 대안 가설이다. 특히 B.C. 588년설은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언약, 에스겔 40:1의 희년 가능성, 제사장 반차와 안식년 주기를 통해 더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V. B.C. 588년설의 장점과 한계

B.C. 588년설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에 대한 기존 주류 견해, 곧 B.C. 586년설과 B.C. 587년설에 도전하는 대안적 연구 가설이다. 이 견해는 단순히 한 해를 앞당기려는 계산상의 시도가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의 연대 표지, 프톨레미 정경의 왕년 배정 문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신학적 시간 구조, 제사장 반차와 안식년·희년 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B.C. 588년설은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가지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헌학적·천문학적·역법적 과제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1. 성경 본문을 연대 계산의 중심에 둔다는 장점

B.C. 588년설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본문 자체를 연대 계산의 중심에 둔다는 점이다. 이 견해는 성경의 연대 표지를 이미 확정된 외부 연대에 맞추어 조정하기보다, 먼저 성경 본문이 스스로 제시하는 시간 구조를 살피려 한다.

예레미야 25:1은 여호야김 제4년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말한다. 또한 예레미야 46:2는 갈그미스 전투를 여호야김 제4년과 연결한다. 일반적인 주류 연대에서는 이 사건들이 B.C. 605년에 놓인다. 그러나 B.C. 588년설은 여호야김의 즉위와 제4년 계산을 재검토하여, 여호야김 제4년을 B.C. 606년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원년과 갈그미스 전투도 B.C. 606년으로 올라가며, 그 결과 느부갓네살 제18년 또는 제19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멸망도 B.C. 588년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접근은 성경 본문의 동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예레미야 25:1의 “여호야김 제4년, 곧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예레미야 연대기의 핵심 기준점이다. 또한 예레미야 32:1은 시드기야 제10년을 느부갓네살 제18년과 연결하고, 예레미야 52:29는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잡혀갔다고 기록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연대 구조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다니엘 1:1의 “여호야김 제3년” 문제도 B.C. 588년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통적 해석은 다니엘 1:1의 제3년과 예레미야 25:1의 제4년을 바벨론식·유다식 계산 차이로 설명한다. 그러나 열왕기하 24:1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삼 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했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다니엘 1:1, 열왕기하 24:1, 예레미야 25:1, 예레미야 46:2는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B.C. 588년설은 이 본문들을 별개로 처리하지 않고, 여호야김 말기와 바벨론 종주권의 시작이라는 하나의 역사 구조 속에서 다시 읽으려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장점은 동시에 검증 과제를 동반한다. 성경 본문 중심의 계산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각 본문의 왕년 계산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여호야김 제3년과 제4년, 느부갓네살 원년, 시드기야 제10년과 제11년, 느부갓네살 제18년과 제19년이 각각 어느 달력 기준과 어느 왕년 계산법에 따라 산출되는지 표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본문 중심이라는 장점이 오히려 선택적 본문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 프톨레미 정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한다는 의의

B.C. 588년설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프톨레미 정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프톨레미 정경은 고대 연대기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성격은 현대적 의미의 역사 연대기가 아니라 천문 계산을 위한 왕년 표에 가깝다. 프톨레미는 월식과 행성 운동을 계산하기 위해 왕들의 연도를 배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짧은 통치, 반란 왕, 공동 통치, 즉위년 계산 방식 등이 단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C. 588년설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는다. 프톨레미가 보존한 월식 현상 자체는 천문학적으로 상당히 정확할 수 있지만, 그 월식을 어느 왕의 몇 년에 배치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나보폴라사르 5년 월식과 느부갓네살 즉위년의 연결, 엷살하돈의 통치연수 배정, 페르시아 왕들의 왕년 처리 문제 등은 프톨레미 정경을 절대무오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논점으로 제시된다.

이 문제 제기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고대 연대기는 한 자료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성경 본문, 바벨론 연대기, 천문일지, 왕명문, 경제문서, 요세푸스, 랍비 전승 등 여러 자료가 서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B.C. 588년설은 “프톨레미 정경을 무조건 거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프톨레미 정경도 다른 자료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자”는 점에서 연구의 균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계를 가진다. 오늘날 신바벨론 연대는 프톨레미 정경 하나만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 BM 21946, VAT 4956, 바벨론 경제문서, 왕명문, 천문일지 등이 서로 맞물려 느부갓네살 즉위년 B.C. 605년, 여호야긴 포로 B.C. 597년, 예루살렘 멸망 B.C. 587/586년의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프톨레미 정경에 일부 오류나 단순화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6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B.C. 588년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프톨레미 정경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프톨레미의 월식과 왕년 배정만이 아니라, 바벨론 연대기와 천문일지 전체를 하나의 대안적 체계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

3. 예레미야 34장과 안식년·희년 배경을 살린다는 장점

B.C. 588년설의 신학적 장점은 예레미야 34장을 안식년·희년 배경 속에서 더 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와 백성이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기로 언약했다가 다시 잡아 종으로 삼은 사건을 기록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회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출애굽 전통과 종 해방 규제, 안식년과 희년 정신을 배반한 언약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은 히브리 종을 일정 기간 후에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규례를 제시한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자유를 선포하고, 각 사람이 자기 기업과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언약은 단순히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질서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 안식년 또는 희년적 주기와 맞물려 있었다면, 이 본문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유다 백성은 멸망 직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유를 선포하는 듯했지만, 곧 그 자유를 철회하고 다시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땅의 안식과 사람의 자유를 거부한 유다의 죄를 드러내며,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언약 파기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B.C. 588년설은 이 신학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살린다. 특히 멸망 직전의 안식년 가능성, 희년 주기, 에스겔 40:1의 희년 선포일 가능성, 역대하 36:21의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는 말씀을 함께 연결한다. 이 점은 B.C. 588년설을 단순한 연대 계산이 아니라 성경신학적 시간 구조 연구로 확장시킨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 예레미야 34장이 반드시 특정 안식년 또는 희년을 직접 언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문은 노예 해방 언약을 기록하지만, 그 사건이 정확히 안식년 때문인지, 희년 때문인지, 아니면 바벨론 포위라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종교적 조치였는지는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B.C. 588년설은 예레미야 34장을 안식년·희년과 연결하되, 이를 결정적 증거라기보다 강력한 신학적·주기론적 보조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4. 제사장 반차와 아브월 파괴 전승을 재검토하게 한다는 장점

B.C. 588년설은 제사장 24반차와 아브월 파괴 전승을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 반차가 24개로 조직되었음을 기록한다. 후대 유대 전승에서는 성전 파괴 시점과 여호야립 반차가 연결된다. 또한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모두 아브월 9일 또는 그 전후에 파괴되었다는 전승은 유대 역사 기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자료들은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역법적으로 검증하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일 특정 연대설에서 아브월 7일, 9일, 10일의 요일과 월령, 안식일 주기, 제사장 반차 순서가 더 자연스럽게 맞는다면, 그 연대설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얻게 된다. 특히 제2성전 파괴 때의 여호야립 반차 전승을 기준으로 제1성전 파괴 시점까지 역산할 수 있다면, 제사장 주기는 흥미로운 검증 자료가 될 수 있다.

B.C. 588년설은 이러한 주기 자료를 통해 성전 파괴일을 단순한 정치사적 날짜가 아니라 예배력과 성전 봉사의 시간 구조 안에서 해석하려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성전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었고, 성전 파괴는 제사장 봉사의 중단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일과 제사장 반차를 함께 연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사장 반차를 절대연대 결정의 1차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제사장 반차가 포로기 동안 중단되었는지, 귀환 후 어떻게 재개되었는지, 제2성전 시대의 반차 순서가 제1성전 시대와 완전히 동일하게 지속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윤월 삽입, 안식일 주기, 절기와 봉사 교대 방식에 따라 역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사장 반차는 결정적 증거라기보다, 성경 본문과 문헌 자료를 보완하는 보조 검증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안식일·안식년·회년 주기를 통합 검증하게 한다는 의의

B.C. 588년설은 안식일, 안식년, 회년이라는 성경적 시간 구조를 예루살렘 멸망 연대 연구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 의의이다. 성경에서 시간은 단순한 연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 질서가 반영된 구조이다. 안식일은 창조의 리듬을, 안식년은 땅의 쉼과 사회적 해방을, 회년은 기업 회복과 자유 선포를 의미한다.

역대하 36:21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안식년 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멸망 연대를 연구할 때 안식년·회년 주기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부가적 계산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으로 필수적인 작업일 수 있다.

B.C. 588년설은 특히 가나안 입성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회년 전승을 검토하게 한다. 만일 17번의 회년 주기가 지났다는 전승을 50년 주기로 계산하면 850년이 되고, 49년 주기로 계산하면 833년이 된다. 이 두 계산을 출애굽, 가나안 입성, 솔로몬 성전 기공,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시작, 예루살렘 멸망과 비교하면 성경 전체의 장기 연대 구조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안식년·회년 주기 역시 해석의 여지가 크다. 회년을 49년 주기로 볼 것인지 50년

주기로 볼 것인지, 가나안 입성 후 몇 년째부터 계산을 시작할 것인지, 포로기 중에는 주기가 중단되었는지 계속되었는지, 제2성전 시대의 안식년 주기를 제1성전 시대로 역산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B.C. 588년설은 주기론 자료를 중요하게 사용하되, 각 계산의 전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6. 컴퓨터 역법 검증과 프로그램화의 가능성

B.C. 588년설의 또 다른 장점은 컴퓨터 역법 검증과 잘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에는 율리우스일 번호, 천문학적 연도 표기, 바벨론 음력, 히브리력, 이집트력, 율리우스력, 월식 자료, 초승달 관측 가능성, 월령, 요일 계산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과거에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검증할 수 있다.

B.C. 588년설은 단순히 문헌 해석만이 아니라, 특정 날짜가 실제로 어떤 요일이었는지, 아브월 7일·9일·10일이 안식일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제사장 반차가 어느 주간에 해당하는지, 안식년 또는 희년 주기와 맞물리는지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나보폴라사르 5년 월식, VAT 4956의 달과 행성 위치, 하지점과 월령을 프로그램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 점은 B.C. 588년설의 중요한 가능성이다. 주장만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B.C. 586년, B.C. 587년, B.C. 588년 세 시나리오를 모두 프로그램에 넣고, 성경의 월일, 바벨론 왕년, 안식일 주기, 안식년·희년 주기, 제사장 반차, 천문 자료와 대조한다면, 각 이론의 설명력을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검증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 프로그램은 입력한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어떤 달력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고대 초승달 관측을 계산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윤월 삽입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일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컴퓨터 계산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도 전제와 알고리즘을 공개한 상태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7. BM 21946과의 긴장

B.C. 588년설의 가장 큰 문헌학적 난점은 BM 21946과의 긴장이다. 이 바벨론 연대기는 나보폴라사르 제21년, 느부갓네살 즉위,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7년의 예루살렘 원정을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이 자료는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5년으로, 여호야긴 포로를 B.C. 597년으로 고정하는 핵심 자료로 사용된다.

B.C. 588년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BM 21946의 연대 환산이 왜 1년 조정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프톨레미 정경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BM 21946은 프톨레미보다 훨씬 가까운 시대의 바벨론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왕년 표기, 월명, 사건 순서, 나보폴라사르 사망과 느부갓네살 즉위의 관계를 B.C. 606/598 체계 안에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

특히 느부갓네살 제7년의 예루살렘 점령과 여호야긴 포로 사건은 성경의 열왕기하 24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류 연대는 이를 B.C. 597년으로 본다. B.C. 588년설은 여호야긴 포로를 B.C. 598 또는 B.C. 599/598로 조정해야 하므로, 이 차이가 성경 본문과 바벨론 자료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8. VAT 4956과의 긴장

B.C. 588년설의 또 다른 큰 난점은 VAT 4956이다. VAT 4956은 느부갓네살 제37년의 천문일지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B.C. 568/567년에 배치된다. 이 배치가 맞다면 느부갓네살의 즉위년은 B.C. 605년, 제1년은 B.C. 604/603년이 되고, 예루살렘 멸망은 B.C. 587/586년 범위 안에 놓인다.

B.C. 588년설은 이 자료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VAT 4956은 단순히 월식 하나만을 기록한 자료가 아니라, 달과 행성의 위치, 월령, 계절적 기준, 하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월식 하나의 불확실성만으로 전체 천문일지를 이동시키기는 어렵다.

만일 B.C. 588년설이 VAT 4956을 재해석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VAT 4956의 “느부갓네살 제37년” 표기가 정확한가? 둘째, 그 해를 B.C. 568/567년으로 배치하는 천문 계산에 오류가 있는가? 셋째, B.C. 568/567년 배치는 맞지만 왕년 계산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넷째, 달과 행성의 위치 전체가 다른 해와도 조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는 VAT 4956은 계속해서 B.C. 588년설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는다.

9. 에스겔 40:1과 B.C. 588년설의 관계

에스겔 40:1은 B.C. 586년설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본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반드시 B.C. 588년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스겔 40:1은 “포로 25년”과 “성읍 함락 후 14년”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 본문은 여호야긴 포로 연대와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함께 계산하게 만드는 결정적 자료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여호야긴 포로를 B.C. 597년으로 보고, 에스겔 40:1을 계산하면 B.C. 587년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B.C. 588년설은 에스겔 40:1의 계산이 왜 B.C.

587년보다 B.C. 588년과 더 잘 맞는지 별도의 계산표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에스겔의 연대 계산 방식이다. 에스겔이 니산월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티쉬리월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포로 연대를 즉위년식으로 계산했는지 비즉위년식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성읍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라는 표현이 함락 사건 이후 만 14년인지, 포괄적 계산으로 14번째 해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에스겔 40:1은 B.C. 588년설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B.C. 588년을 증명하는 본문은 아니다. 오히려 에스겔 40:1은 세 연대설 모두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기준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0. 주기론 자료의 불확실성과 사용 원칙

B.C. 588년설은 제사장 반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주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주기론 자료는 성경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연대의 1차 기준점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제사장 반차의 경우, 제1성전 시대부터 제2성전 시대까지 동일한 순서가 중단 없이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안식일 주기는 연속성이 강하지만, 고대 날짜를 현대 요일로 환산할 때는 율리우스일 번호와 일몰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안식년 주기는 제2성전 시대와 랍비 전승에서 비교적 추적 가능하지만, 제1성전 시대로 역산할 때에는 중단 여부와 계산 시작점이 문제가 된다. 희년 주기는 더욱 복잡하다. 49년 주기인지 50년 주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실제 역사 속에서 희년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도 논쟁적이다.

그러므로 B.C. 588년설은 주기론 자료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기보다, 성경 본문과 문헌 자료를 보완하는 보조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주기론 자료가 여러 독립 기준과 동시에 조화를 이룬다면, 그때는 강력한 누적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11. 종합 평가

B.C. 588년설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가진다. 첫째, 성경 본문 자체를 연대 계산의 중심에 놓는다. 둘째, 프톨레미 정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셋째,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언약을 안식년·희년 배경에서 해석하게 한다. 넷째, 제사장 반차와 아브월 파괴 전승을 역법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다섯째, 안식일·안식년·희년 주기를 성경 연대기 연구에 통합한다. 여섯째, 현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BM 21946의 신바벨론 연대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둘째, VAT 4956의 느부갓네살 제37년 천문일지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셋째, 에스겔 40:1이 왜 B.C. 587년보다 B.C. 588년을 더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가. 넷째, 제사장 반차와 안식년·회년 주기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다섯째, 컴퓨터 역법 계산의 전제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투명하게 제시할 것인가.

따라서 B.C. 588년설은 단정적 결론이라기보다, 매우 의미 있는 대안 연구 가설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견해는 기존 연대 체계의 약점을 드러내고, 성경 본문과 신학적 시간 구조를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B.C. 586년설이나 B.C. 587년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문헌과 천문 자료, 성경 내부 연대와 주기론 자료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B.C. 588년설의 가치는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이 한두 해 더 빨랐다”는 주장에 있지 않다. 그 진정한 가치는 성경의 연대기와 예언, 안식년과 회년, 성전과 제사장 봉사, 포로와 회복의 신학을 하나의 통합된 시간 구조 속에서 다시 보게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B.C. 588년설은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향후 문헌학·천문역법·성경신학·컴퓨터 계산이 결합된 종합 연구를 통해 더 정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VI. 앞으로 검증해야 할 핵심 과제

1. 나보폴라사르 5년 월식의 왕년 배정 재검토

프톨레미가 기록한 월식 자체가 실제 천문 현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보폴라사르 제5년인지 제6년인지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집트력 Athyr 27/28, 나보나사르 기원 127년, 바빌론 관측 시간, 율리우스력 및 천문학적 연도 환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2. BM 21946의 절대연대 재계산

BM 21946의 나보폴라사르 제21년과 느부갓네살 즉위년을 B.C. 605년으로 보는 주류 환산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만일 B.C. 606년으로 조정하려면, 바벨론 음력 월명, 왕의 사망일, 즉위일, 아키투 축제, 갈그미스 전투의 계절적 배경이 모두 조화되어야 한다.

3. VAT 4956의 전체 천문 자료 재검증

VAT 4956은 단순한 월식 기록이 아니라 달과 행성 위치를 포함하는 천문일지이다. 따라서 B.C. 588년설을 지지하려면 이 자료 전체가 B.C. 568/567이 아니라 다른 해로도 조화될 수 있는지, 또는 B.C. 568/567은 맞지만 왕년 계산이 달라져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4. 에스겔 포로 연대의 계산 방식 확정

에스겔서의 포로 연대가 니산월 기준인지 티슈리월 기준인지, 즉위년식인지 비즉위년식인지 확정해야 한다. 에스겔 1:1-2, 24:1-2, 33:21, 40:1을 하나의 포로 배열하고, B.C. 586·587·588년설이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지 비교해야 한다.

5. 시드기야 통치연도와 예루살렘 포위 기간 검토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 52장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포위가 시작되고, 제11년 넷째 달에 성이 함락되며, 다섯째 달에 성전이 불탔다고 기록한다. 이 포위 기간을 각 연대설에 맞추어 실제 달력으로 환산해야 한다.

6. 제사장 반차와 아브월 9일 전승 검증

제사장 24반차의 시작점과 여호야립 반차의 순서를 제1성전 파괴 시점까지 역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2성전 파괴 때 여호야립 반차였다는 전승이 제1성전 파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7. 안식년·희년 주기의 독립적 검증

안식년 주기는 마카비 시대, 요세푸스, 랍비 문헌, 세데르 올람, 탈무드 전승, 현대 유대력 계산 등을 통해 역산할 수 있다. 그러나 49년 주기와 50년 주기, 포로기 중단 여부, 성전 파괴 후 재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B.C. 588년설은 안식년·희년 주기를 하나의 단정적 증거가 아니라 다중 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한다.

VII. 결론

예루살렘 멸망 연대는 B.C. 586년, B.C. 587년, B.C. 588년이라는 세 가지 주요 견해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세 견해는 단순히 한두 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과 바벨론 문헌, 프톨레미의 천문 자료, 에스겔 포로 연대, 제사장 반차, 안식년·희년 주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B.C. 586년설은 티레식 히브리 왕 연대기 체계 안에서 전통적 안정성을 가진다. 이 견해는 열왕기하 25:8과 예레미야 52:12의 “느부갓네살 제19년”을 중요하게 반영하며, 오랫동안 보수적 성경 연대기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에스겔 40:1의 “포로 제25년”과 “성읍이 함락된 후 제14년”이라는 이중 연대 표지를 엄밀하게 계산할 때에는 약점을 드러낸다.

B.C. 587년설은 BM 21946, 에스겔 40:1, 예레미야 52:29 등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맞물리며,

현재 가장 강한 학문적 후보로 평가될 수 있다. 여호야긴 포로를 B.C. 597년으로 놓을 경우, 에스겔 40:1의 포로 연대와 성읍 함락 후 연대는 B.C. 587년설과 자연스럽게 조화된다. 또한 예레미야 52:29의 느부갓네살 제18년 표현도 이 견해와 잘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열왕기하 25:8과 예레미야 52:12의 제19년 표현은 바벨론식 즉위년 계산과 유다식 왕년 계산의 차이로 설명해야 한다.

B.C. 588년설은 유진 폴스티히의 연구처럼 프톨레미 정경의 왕년 배정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성경 본문과 제사장 주기, 안식년·희년 주기를 새롭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 가설이다. 이 견해는 예레미야 25:1과 46:2의 “여호야김 제4년 =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본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다니엘 1:1의 여호야김 제3년 문제,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언약, 에스겔 40:1의 희년 가능성, 가나안 입성부터 성전 파괴까지의 희년 전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만든다.

그러나 B.C. 588년설이 주류 연대를 대체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나보폴라사르 5년 월식의 왕년 배정, BM 21946의 절대연대, VAT 4956의 느부갓네살 제37년 천문자료, 에스겔 포로 연대, 제사장 반차와 안식년·희년 주기가 모두 하나의 체계 안에서 조화되어야 한다. 특히 B.C. 588년설은 프톨레미 정경 비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BM 21946과 VAT 4956을 포함한 신바벨론 1차 자료를 설득력 있게 재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B.C. 586년설 대 B.C. 588년설”이라는 단순 대립을 넘어, “B.C. 586·587·588년설의 삼중 비교”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B.C. 586년설의 약점이 곧바로 B.C. 588년설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그 대안은 B.C. 587년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세 견해를 같은 기준표 위에 올려놓고, 각 연대설이 성경 본문, 바벨론 문헌, 천문 자료, 주기론 자료와 어느 정도 조화되는지 비교해야 한다.

또한 성경 본문 중심의 연대 계산표가 필요하다. 예레미야 25:1, 32:1, 34장, 39장, 52장, 에스겔 1장, 24장, 33장, 40장, 다니엘 1장, 열왕기하 24-25장을 하나의 표에 배열하여, 여호야김 제3년과 제4년, 느부갓네살 원년, 여호야긴 포로, 시드기야 제10년과 제11년, 느부갓네살 제18년과 제19년이 각 이론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경 본문을 외부 연대에 종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경 본문을 중심축으로 외부 자료를 검증하는 연구가 되게 한다.

제사장 주기와 안식년·희년 주기 역시 앞으로 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예레미야 34장의 노예 해방 언약은 멸망 직전 유다 사회 안에 안식년 또는 희년 의식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에스겔 40:1의 “그 해의 시작, 그 달 열째 날”도 희년

선포일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식년과 희년 주기는 단순한 보조 계산이 아니라 성경신학적 시간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천문역법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도 필요하다. 아브월 7-10일의 요일, 바벨론 음력 월초, 윤월 삽입, 월식과 월령, 하지점, 제사장 24반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올림피아드 주기를 통합한 계산 도구가 개발된다면 세 연대설의 가능성을 더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견해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각 견해가 실제 역법과 천문 자료, 성경의 월일 표기와 얼마나 조화되는지를 검증하는 객관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B.C. 588년설은 배척할 가설이 아니라, 성경 본문과 주기론적 자료를 새롭게 조명하는 의미 있는 연구 가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결론이라기보다, 더 정밀한 문헌학적·천문역법적·성경신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이 연구가 계속된다면 예루살렘 멸망 연대는 단순한 날짜 논쟁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안식년과 희년, 성전과 제사장 직무, 포로와 귀환의 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주석

아래 주석은 본문 중간의 위첨자 번호와 연결되며, 시카고식 각주-참고문헌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성경 본문 자체는 장·절 표기를 본문 안에 직접 표기하였다.

1. 안식년·희년 주기 자료는 성경 본문, 요세푸스, 랍비 전승, 현대 계산 사이의 전제가 다르므로 본 논문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보조 검증 자료로 사용한다. 관련 논의는 Young, “Ezekiel 40:1 as a Corrective,” 265-283을 참조.
2. 요세푸스 인용은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및 *The Jewish War*, trans. William Whiston (Peabody, MA: Hendrickson, 1987)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권·장·절은 최종 제출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틸레의 히브리 왕 연대 체계는 Edwin 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3rd ed. (Grand Rapids, MI: Zondervan/Kregel, 1983); idem, *A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7)을 참조.
4. BM 21946, 이른바 예루살렘 연대기/Jerusalem Chronicle의 기본 출판과 번역은 Wiseman,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및 A. K. Grayson, *Assyrian and Babylonian Chronicles* (Locust Valley, NY: J. J. Augustin, 1975)을 참조.
5. VAT 4956은 느부갓네살 제37년 천문일지로 다루어지며, Abraham J. Sachs and Hermann Hunger, *Astronomical Diaries and Related Texts from Babylonia*, vol. 1 (Vienna, 1988)을 참조. 이 자료는 B.C. 588년설 검증에서 핵심 난점으로 남는다.
6. 에스겔 40:1의 포로 25년/성읍 함락 후 14년 계산과 희년 가능성에 대해서는 Young, “When Did Jerusalem Fall?” 21-38; idem, “Ezekiel 40:1 as a Corrective,” AUSS 44, no. 2 (2006): 265-283; idem, “Ezekiel’s Jubilee,” JETS 67, no. 3 (2024): 475-492를 참조.
7. Eugene W. Faulstich and Leroy Vogel, *History, Harmony & the Hebrew Kings* (Spencer, IA: Chronology Books, 1986). 폴스티히의 606/588년 체계는 주류 신바벨론 연대와 차이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안 가설”로 분류하였다.

참고문헌

- Albright, William F. “The Chronology of the Divided Monarchy of Israe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00 (1945): 16-22.
- Faulstich, Eugene W., and Leroy Vogel. *History, Harmony & the Hebrew Kings*. Spencer, IA: Chronology Books, 1986.

- Finegan, Jack. *Handbook of Biblical Chronology: Principles of Time Reckoning in the Ancient World and Problems of Chronology in the Bible*. Rev. ed. Peabody, MA: Hendrickson, 1998.
- Grayson, A. Kirk. *Assyrian and Babylonian Chronicles*. Texts from Cuneiform Sources 5. Locust Valley, NY: J. J. Augustin, 1975.
- Horn, Siegfried H. "The Babylonian Chronicle and the Ancient Calendar of the Kingdom of Judah."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5, no. 1 (1967): 12-27.
- Josephus. *The Jewish War*. In *The Works of Josephus*. Translated by William Whiston. Peabody, MA: Hendrickson, 1987.
-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In *The Works of Josephus*. Translated by William Whiston. Peabody, MA: Hendrickson, 1987.
- Parker, Richard A., and Waldo H. Dubberstein. *Babylonian Chronology 626 B.C.-A.D. 75*. Providence, RI: Brown University Press, 1956.
- Ptolemy. *Ptolemy's Almagest*. Translated and annotated by G. J. Toom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Sachs, Abraham J., and Hermann Hunger. *Astronomical Diaries and Related Texts from Babylonia*. Vol. 1, Diaries from 652 B.C. to 262 B.C.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88.
- Stephenson, F. Richard. *Historical Eclipses and Earth's Ro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Thiele, Edwin R. *A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7.
-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3rd ed. Grand Rapids, MI: Zondervan/Kregel, 1983.
- van der Waerden, Bartel L. *Science Awakening II: The Birth of Astr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Wiseman, Donald J.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1956.
- Young, Rodger C. "When Did Jerusalem Fal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7, no. 1 (March 2004): 21-38.
- Young, Rodger C. "Ezekiel 40:1 as a Corrective for Seven Wrong Ideas in Biblical Interpretati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44, no. 2 (2006): 265-283.
- Young, Rodger C. "Ezekiel's Jubilee: Real or Rabbinic Fiction? Part 1: Ezekiel 40:1 and 1 Kings 6:1."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67, no. 3 (2024): 475-492.